

가정예배 세우기 프로젝트

HAPPY FAMILY

가정이 교회가 된다

WEEK

02



Jacob's
Ladder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

행 2:1-42

찬양 시간

- 1 내 마음에 가득 채운
- 2 성령이 오셨네
- 3 이 기쁜 소식을(찬 185장)

* 큐알 코드를 인식하여 스마트폰으로 찬양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2 / 3



말씀 시간

- 1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 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 3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 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 5 그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 6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 7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 8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나
- 9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 10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
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 11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 12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 13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 14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 15 때가 제 삼 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 16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 17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 18 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 19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 20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 21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 22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 23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 24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 25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뵈었음이어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 26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 27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 28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 29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 30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 31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 32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 33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 34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 35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 36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 37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 38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 39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 40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 41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 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이제 죽는다고 하니 제자들은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로 하면 완

전히 멘붕에 빠졌습니다. 낙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얘들아, 괜찮다. 나는 가지만 이제 나 대신 성령이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고, 결국 그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님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는 방법을 베드로가 3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행 2:38**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약속은 2000년 전 오순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한 약속입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행 2:39**

성령을 주시겠다고 한 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 저 먼 곳의 사는 사람들까지, 즉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지금 2020년 이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아 죄 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성도이고, 그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43절부터 47절까지 등장합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같이 쓰고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시대 우리 교회들은 칭찬보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부흥보다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는데 어떻게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날마다 부흥했을까요? 그 해답이 42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행 2:42**

네 가지가 나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서로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힘을 썼다고 합니다. 이 힘을 썼다는 것이 기도하는 것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것에도 힘을 썼고 교제하는 것에도 힘을 썼으며 떡을 떼는 것에도 힘을 썼다는 단어가 적용됩니다.

즉 교회가 무엇에 힘을 쓰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네 가지에 힘을 쓸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칭찬받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나눔 시간

Q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이전과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하게 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Q 이 시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충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충만하기 위해 내 삶에서 변화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기도 시간

하나님, 우리 가정이 먼저 기도예 무릎 꿇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 우리에게 뜨거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